

조국통일3대헌장은 민족자주로 일관된 통일대강

신 분 진

우리 당과 인민이 력사의 풍파를 과감히 뚫고 조국통일운동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주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정립해주신 조국통일3대헌장을 높이 들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해온 결과이다.

조국통일3대헌장에는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는 우리 민족의 민족자주정신이 체현되어있으며 북과 남의 화해와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온 민족의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구현하고있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오래동안 존재하여온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과 통일을 갈망하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도를 밝혀주고있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자주의 원칙과 통일문제해결의 전략적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있는것으로 하여 통일위업수행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치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어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검증된 조국통일3대헌장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79페이지)

조국통일3대헌장은 나라의 통일을 남에게 의존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자신이 책임지고 온 겨레의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할데 대한 투철한 민족자주정신이 맥박치고있다.

조국통일3대헌장이 민족자주로 일관된 통일대강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우리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려는 우리 인민의 자주적립장을 반영하고있기때문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자주적립장을 견지한다는것은 남조선에서 미제를 내쫓고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우리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여야 우리 민족의 권리와 리익을 수호할수 있으며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성취할수 있다.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복잡하고 첨예한 때일수록 민족문제, 통일문제해결에서 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가야 한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우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여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립장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고있다.

자주성은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인 동시에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사람이 자주성을 잃으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것처럼 나라와 민족도 자주성을 떠나서는 그 존재와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여야 민족의 권리와 리익을 수호할수 있고 민족의 운

명을 민족의 의사와 리익, 요구에 맞게 개척해나갈수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고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관계를 발전시킬수 있다. 민족의 자주성에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있고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이 있으며 민족의 불굴의 의지와 기상이 있다.

오늘 우리 민족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지 못하고있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하여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지 못하고있는 이러한 정세를 반영한 통일대강이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또한 민족의 생사운명과 관련된 조국통일위업을 외세에 의해서가 아니라 온 겨레가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힘을 합쳐 해결할데 대한 우리 민족의 자주적립장을 반영하고있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이 대단결하여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실현할것을 규정하고있다. 이것은 북과 남이 손을 잡고 민족분렬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민족의 의지를 반영한것으로 된다.

조국통일문제해결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조선민족이다. 통일문제해결에서 외세의 간섭을 허용하면 우리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없을뿐아니라 결국 민족의 자주성문제도 해결할수 없다는것이 지난 반세기가 넘는 우리 민족분렬의 력사가 말해주는 뼈저린 교훈이다.

특히 제국주의자들이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지배주의적책동을 강화하고있으며 조선의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는 외세가 북과 남을 대결으로 부추기고있는 조건에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 문제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민족적단결은 민족의 존재와 발전을 위한 필수적전제이다.

민족의 흥망성쇠와 관련되는 민족성원들의 단합은 요구와 리해관계가 서로 다른 각이한 계급과 계층을 하나의 사회적집단으로 결합시킬수 있는 민족자주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민족자주는 민족성원들이 민족이라는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공고하게 결합되어 끊임없이 강화발전해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바탕이다.

이로부터 민족자주는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으로 반세기가 넘도록 북과 남으로 갈라져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지 못하고있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단결시킬수 있는 기본정신으로 된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여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립장과 민족의 생사운명과 관련된 조국통일위업을 외세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해결할데 대한 우리 민족의 자주적립장을 반영한 통일대강이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민족자주는 조국통일3대헌장에 관통되어있는 기본정신으로 된다.

조국통일3대헌장이 민족자주로 일관된 통일대강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민족자주의 리념을 출발적전제, 출발적기초로 하기때문이다.

조국통일3대헌장의 출발적전제, 출발적기초는 바로 민족자주이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우리 민족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힘있는 민족이라는 전제밑에 북과 남이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으로 뗄수없이 련결되어있는 단일민족이라는데 기초한 통일대강이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우리 민족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반드시 민족자체의 힘으로 실현할수 있는 자주성이 강한 민족이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적기간을 내려오는 과정을 통하여 애국심이 강하고 민족자주정신이 높은 민족, 무궁무진한 창조적능력을 가진 힘있는 민족이라는것을 널리 과시하였다.

우리 민족은 자체로 조국통일을 이룩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슬기롭고 힘있는 민족이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우리 민족이 어디까지나 자주성이 강한 단일민족이며 민족자체의 힘으로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할수 있는 힘있는 민족이라는것을 전제로 한 통일대강이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우리 민족이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으로 하여 서로 뗄수없이 련결된 하나의 민족이라는데 기초하고있다.

조선의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두개의 민족이 대치되어있는것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 한강토안에서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갈라져있다.

조선민족은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하나의 혈통을 이어받고 같은 말을 하면서 한강토에서 살아온 하나의 민족이다. 그 누구도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형성발전된 단일한 조선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을수 없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의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는것은 민족의 모든 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사상감정이다.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은 민족대단결의 리념적기초이다.

외세에 의하여 민족이 갈라지고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은 조국통일3대헌장의 기초로 된다.

조선사람은 어느 지역, 어느 제도에서 살건 조선민족의 피와 녀을 지닌 하나의 민족이며 민족공동의 리익과 공통된 민족적심리와 감정으로 뗄수없이 련결되어있다.

북과 남에 현존하는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민족단합을 실현할수 있는 기초는 민족성과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이다. 나라와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민족의 존엄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는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민족적특질이다.

민족자주가 아니라 사대와 외세의존을 일삼으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귀중히 여긴다는것은 분렬주의세력들이 저들의 매국배족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꾀변이다. 애국애족과 매국배족이 량립될수 없는것처럼 민족자주와 외세의존은 량립될수 없다.

지난날 나라와 민족을 일제에게 팔아먹고 겨레에게 망국노의 운명을 강요한 《을사오적》들과 외세와 결탁하고 《공조》하면서 분렬의 장벽을 높이 쌓고 동족사이에 대결을 격화시키면서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가로막은 분렬주의세력들의 최악의 행적은 민족자주의 원칙이야말로 애국과 매국, 애족과 배족을 가르는 시금석이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준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북남사이의 화해와 민족의 단합, 조국통일을 바란다면 외세의존이 아니라 민족자주의 길로 나가야 한다.

조국통일3대헌장이 민족자주로 일관된 통일대강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민족자주가 조국통일3대헌장에 관통되어있는 기본정신이며 그 실현에 이바지하기때문이다.

조국통일3대헌장의 모든 내용은 민족자주로 일관되어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것으로 되어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3대원칙은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이며 그에 일관된 기본정신은 다름아닌 민족자주이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며 북과 남사이에 전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평화적으로 이룩할데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과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전민족의 리익에 맞게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민주주의적원칙의 본질적요구를 구현하고있다. 조국통일3대원칙이야말로 조국통일문제해결의 근본립장과 정세발전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조국통일의 기본원칙이다.

민족자주를 핵으로 하는 조국통일3대원칙이 밝혀짐으로써 민족의 분렬을 종식시키고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할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방침과 전략전술의 기초가 마련되게 되었다.

민족자주를 근본원칙으로 하는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민족대단결의 원칙들가운데서 가장 본질적이며 근본적인 의의를 가지는 원칙, 민족대단결의 기초와 이어의 원칙들을 규제하는 원칙이다.

우리 민족의 대단결은 민족자주의 원칙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오직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할 때에만 민족의 대단결이 이루어질수 있고 우리 민족이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으며 민족통일과 민족번영의 위력한 추동력으로, 결정적력량으로 될수 있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민족의 모든 성원들이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마음과 뜻을 같이할수 있게 한다.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나가는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없다.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다.

우리 민족은 힘이 약하여 외세에 국권을 빼앗기고 망국과 분렬을 강요당하였던 어제의 약소민족이 아니다.

외세는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어 강대해지는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이것은 민족분렬의 오랜 력사가 보여주는 뼈저린 교훈이다.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여기저기 들고다니며 외세에 구걸하는것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는 매국배족행위이며 반통일행위이다.

조국통일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것도 아니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는 련방제방식의 통일국가창립방안은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민족공동의 통일방도인 련방제방식을 확정하는 기초로 된다. 련방제방식의 조국통일방도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민족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의 통일국가로 되어야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확립할수 있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제기함으로써 북과 남에 있는 두 체도를 그대로 두고 민족통일국가를 세우는 방법으

로 나라의 통일을 빨리 실현할수 있게 한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평화를 사랑하는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념원을 반영하여 나라의 통일을 전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북과 남이 화해와 협력의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할데 대하여 규정하고있다.

나라의 통일을 전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평화적으로 이룩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념원에도, 인류의 보편적리념에도 부합된다. 우리 민족은 이미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동족상쟁의 가슴아픔을 당한 민족으로서 나라의 통일을 북과 남이 싸우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민족의 힘을 합쳐 평화적으로 해결할것을 념원하고있다.

련방제방식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원칙에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민족자주의 원칙을 밝혀주는것으로 하여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수 있는 공명정대한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로 된다.

북과 남은 이미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에서 우리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북과 남은 상대방에 존재하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온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련방국가를 창립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제도통일》의 허황한 꿈을 버리고 내외에 천명한대로 련방제방식의 통일실현으로 방향전환을 하여야 한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천만부당한 《제도통일》을 고집하면서 끝끝내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우리는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반통일세력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고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것이다.

우리모두는 온 겨레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어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헌장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의 앞길을 열어나아가야할것이다.